

광주·전남 시·도민 지방선거 6차 여론조사

광주일보·KBC·한국갤럽

유권자 68% “투표 꼭 하겠다”

차시장 찬성 46%...남성·50대 이상 우호적
차지사 찬성 61%...서남권·자영업자 호감

■ 시·도지사 연임에 대한 견해

▲박광태 시장의 연임=박광태 광주시장의 연임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45.8%, ‘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좋겠다’고 답한 응답자는 43.2%로 연임 찬성이 조금 많았다.
성별로는 남자(50.7%)가 여자(41.2%)보다 연임에 우호적으로 평가했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(57.70%)의 연임 긍정 평가가 가장 많았다. 30대는 37.6%, 40대는 43.9%가 연임에 긍정적이었다.
또 직업별로는 농·임·어업(80.2%), 학생(49.6%)이 연임에 보다 긍정적인 반면 전업주부(38.0%)의 긍정 평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.
지역별로는 광산구(51.0%)의 연임 긍정

평가가 가장 많았지만 북구(40.4%)와 서구(46.8%)는 긍정 평가에 인색했다
▲박준영 지사의 연임=박준영 지사의 연임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61.3%인 반면 ‘다른 사람이 도지사가 되는 것이 좋다’고 답한 응답자는 22.5%였다.
여자(59.8%)보다는 남자(62.9%)가 연임 지지가 높았으며, 20대 이하(42.1%) 보다는 30대(47.9%), 40대(69.9%), 50대 이상(71.9%)이 연임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.
지역별로는 해남·진도(85.5%), 강진·완도(77.2%), 장흥·영암(75.2%), 목포시(66.3%) 등 서남권이 박 지사의 연임에 우호적인 반면 여수(49.4%)와 무안·신안(46.4%)은 연임에 반대하는 부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.
직업별로는 학생 응답자의 24.0%, 자영업자 응답자의 74.6%가 연임에 찬성했다.

우리당 지지 62%·민주 지지 74% “꼭 투표”

■ 지방선거 투표 의향

5·31 지방선거에서 ‘투표를 꼭 하겠다’고 응답한 유권자는 67.8%. ‘아마 할 것이다’라고 응답한 유권자 17.2%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85%가 투표에 참여할 뜻을 나타냈다.
반면 ‘아마 하지 않을 것이다’는 6.9%, ‘투표하지 않겠다’는 4.5%로 11.4%가 투표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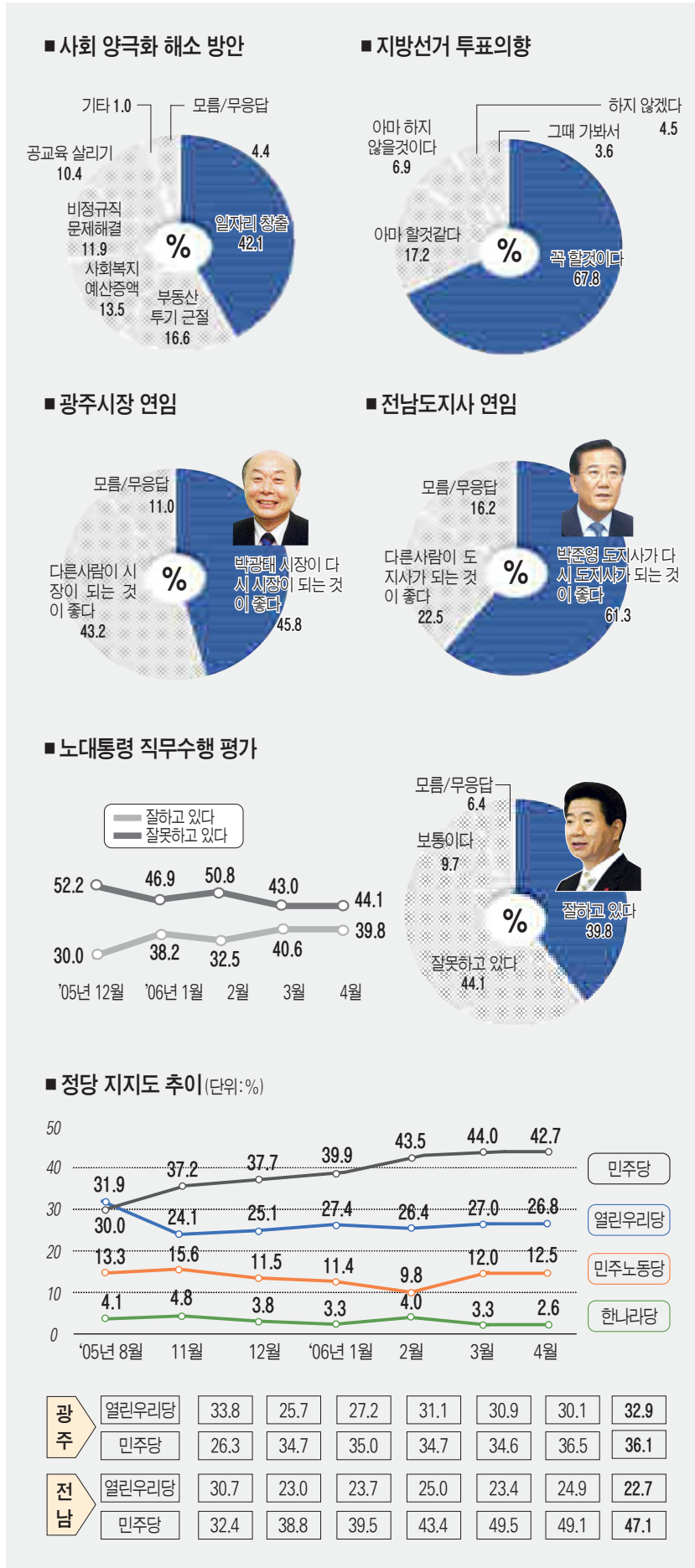
부정적 반응을 보였다. 3.6%는 ‘그때 가봐서’ 투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.
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의 경우 71.8%만이 투표에 응할 뜻을 나타냈고 50대 이상은 92.5%나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.
꼭 투표하겠다고 밝힌 적극적 투표 참여자는 민주당 지지자가 74.4%, 열린우리당 지지자는 61.6%, 한나라당 지지자는 65.5%, 민노당 지지자는 57.2%였다.

일자리 창출 42%, 부동산 투기 근절 17%

■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

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른 사회양극화에 대해 시·도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함께 살폈다. 광주·전남 유권자의 절반 이상(50.9%)은 부와 가난의 세습현상이 앞으로 ‘심

화될 것’이라고 전망했고, ‘완화될 것’이라는 의견은 17.2%에 불과했다. ‘변화없을 것’이라는 진단도 25.1%나 됐다.
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42.1%가 ‘일자리 창출’을, 16.6%는 ‘부동산 투기 근절’, 13.5%는 ‘사회복지예산 증액’, 11.9%는 ‘비정규직 문제해결’, 10.4%는 ‘공교육 살리기’를 각각 꼽았다.



유권자 1,026명 표본추출 전화면접

■ 어떻게 조사했나

5·31 지방선거 광주·전남지역 제6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(Gallup Korea)에 의뢰, 지난 16~17 일틀 동안 이뤄졌다.
직업별로는 농·어·임업 168명(16.3%), 자영업 78명(7.6%), 블루칼라 87명(8.4%), 화이트칼라 232명(22.7%), 전업주부 280명(27.3%), 학생 75명(7.3%), 무직 106명(10.4%)이었다.
각 지역별 인구수 비례에 따라 성별, 연령별 쿼터를 할당한 뒤 전산화된 전화번호 인명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응답

자는 광주 505명, 전남 521명이었다.
응답자는 성별로 남자가 502명(49.0%), 여자가 524명(51.0%)이었고 연령별로 19~29세 220명(21.4%), 30대 217명(21.2%), 40대 210명(20.5%), 50세 이상 379명(36.9%)이었다.
직업별로는 농·어·임업 168명(16.3%), 자영업 78명(7.6%), 블루칼라 87명(8.4%), 화이트칼라 232명(22.7%), 전업주부 280명(27.3%), 학생 75명(7.3%), 무직 106명(10.4%)이었다.
표본오차의 최대 허용계는 95% 신뢰수준에 ±3.1% 포인트다.
/박지경기자 jkpark@

‘공천 파문’ 민주당 42.7%로 소폭 하락

우리당 26.8% 민노 12.5% 한나라 2.6%

■ 정당 지지도

지난해부터 이어진 광주·전남지역 민주당의 상승세가 이번에는 멈추고 소폭 하락했다. 이번 여론조사의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달 44.0%보다 1.3%포인트 떨어진 42.7%였다. 열린우리당 지지율도 전달(27.0%)보다 0.2%포인트 내린 26.8%를 기록했다. 때문에 지지율 격차는 조금 줄었다. 최근 광주·전남지역에서 잇따라 터진 공천 파문이 민주당 여론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. 지난해 11월(15.6%) 지지율 최고치를 기록한 민노당은 지난 2월(9.8%)까지는 가파르게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지난 조사에서 12.0%로 10%대를 회복하고 이번에는 다시 12.5%를 기록, 상승세를 이어갔다.
민주당은 광주에서 36.1% 지지율로 전달 여론조사에 비해 0.4%포인트 지지도가 하락하는데 그쳤으나 전남에선 47.1%의 지지

율로 전달에 비해 2.0%포인트나 떨어졌다. 공천 파문의 여파가 광주보다 전남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.
그런데도 열린우리당은 전남에서 22.7%의 지지율로 지난해 11월 분사 여론조사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했다. 공천 파문의 틈새를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. 광주에선 32.9%로 전달에 비해 2.8%포인트나 지지도가 상승하며 지난해 11월 이래 최대치를 보였다.
민주당은 군지역·50대 이상·중고졸 이하·농·임·어업 종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았고 열린우리당은 시지역·20~30대 이하·대졸 이상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층이 두터웠다.
한나라당은 지난 여론조사 3.3%보다 소폭 하락한 2.6%의 지지율을 기록했다. 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선거운동이 눈에 띄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.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남 50%, 40대 56% “잘못하고 있다”

■ 노대통령 직무수행 평가

노무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광주·전남지역민들은 ‘잘하고 있다’ 39.8%, ‘잘못하고 있다’ 44.1%로 부정적 시각을 가진 경우가 다소 많았다. 전달보다 긍정적 평가는 줄고 부정적 시각은 늘었다. 때문에 긍정·부정 평가 격차가 전달 2.4%포인트에서 이번 달 4.3%포인트로 확대됐다.

노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남성(50.2%)과 40대(56.0%)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. 반면 20대 이하 층에서는 긍정적 시각이 49.6%나 됐다.
열린우리당 지지층에서는 58.9%가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민주당(32.6%)과 한나라당(15.3%) 지지층에서는 긍정 시각이 상대적으로 적었다.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(45.1%)와 학생(46.6%) 층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많았다.

가는 세월은 잡을 수 없어도
흐르는 물은 잡을 수 있습니다

사회문제

www.gwangju.co.kr